

우성타이어(주)

ISO 9001 인증 본심사 실시

1년여에 걸쳐 준비한 ISO 9001 인증 본심사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사무소 수출팀을 시작으로 대전지점, 양산 본사 등 영업, 생산, 관리 등 전분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TUV RHEINLAND KOREA에서 심사한 ISO 9001에 대한 결과는 11월중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수석심사관의 표현대로 모든 부분이 완벽했으며 일부 부서에서 MINOR한 지적사항이 몇 건 발생되었을 뿐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목표한 11월중 인증획득은 무난하리라고 생각된다.

서울사무소 불링동아리 발기인 모임 가져

우성타이어(주) 서울사무소 직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불링동아리의 발기인 모임이 11월 5일 서울사무소에서 있었다. 그동안 소그룹별로 진행되었던 불링대회를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진행하려는 취지에서 본 동아리 모임이 결성되었다.

불링회의 명칭은 직원들간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려는 취지에서 'APHRODITE'(그리

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로 정했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수출2팀의 조광배 부장, 부회장은 특판팀의 김철 과장, 총무는 김현석 사우가 각각 맡았다.

내년 봄에는 양산 본사 불링동아리와 정규전을 마련하여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우성타이어 부산공장 철거작업 시작

우성타이어는 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 전포동 소재 부산공장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우성타이어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8일 김동철 사장을 비롯하여 박태 상무, 박길린 공장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사를 지내고 사고없는 안전한 철거작업을 기원했다.

이날 철거작업전 지낸 고사에서 김동철 사장은 "비록 부산공장이 우성타이어의 오랜 역사와 감회가 서려 있는 곳이나 옛것이 허물어져야 새것이 설 수 있듯이 보다 좋은 새것을 위한 허물이니만큼 아쉬움을 뒷전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전한 철거를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이번에 철거되는 우성타이어 부산공장은 국내 타이어 기술의 원조인 홍아타이어로 출발, 원풍산업, 우성산업 등의 상호변경을 거쳐 오늘의 우성

타이어에 이르렀으며, 금년 12월까지 철거작업이 완료되어 '95년부터는 각종 자동설비를 갖춘 양산공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부산공장 부지에는 우성건설의 첨단설계로 인텔리전트 주상복합건물인 우성리빙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산공장, 소방교육 실시

우성타이어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양산공장 전사우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화재발생률이 높은 동절기에 대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방화관리자의 이론교육에 이어 분말소화기 사용방법을 실습을 통해 익혔으며, 가상화점을 선정한 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직접진화작업도 실시했다.

여사원 예절교육 실시

우성타이어는 양산 본사 및 부산공장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여사원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동남은행 교육팀의 초청강연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른 인사법, 전화응대 등 직장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각종 예절을 POLE PLAYING을 통해 직접 반복실습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주) 금 호

‘초일류 기업을 위한 초일류 사원 결의대회’ 가져

주식회사 금호는 지난 7일과 8일, 10일 각 사업장별로 ‘초일류 기업을 위한 초일류 사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남 일 사장은 ‘일할 맛 나는 회사, 각 개인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생활이 보장되는 회사,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초일류 기업이며, ‘과감한 자기변신을 요구하면서,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투철한 Professionalism에 근거한 자기분야의 최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주어진 분야를 감당해 내는 현장책임주의-도덕성과 인간미를 갖춘 자기분야의 Professionalist로서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한 철저한 현장책임주의자’가 초일류 사원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초일류 기업으로 한걸음 앞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변화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며,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고질적인 습관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요구하는 세계조류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Benchmarking 제도를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도입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전 임직원은 구성원들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회사의 사업역량을 최대로 창출하기 위한 혼의 혁명을 결의하기 위해 ‘초일류를 향한 금호인의 결의’를 채택하여 선언하였다.

’94년도 전국품질경영대회 분임조 및 품질명장 대통령상 수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산업에 품질의식을 높이는 한편, 품질경영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94년도를 ‘품질의 해’로 정한바 있다. 11월 ‘품질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표준협의회가 주최하고 공업진흥청이 후원하는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주식회사 금호 곡성공장 제조2과 서석대분임조가 모범분임조분야에서 대통령 은상을 수상하였고, 광주공장 제조1부 김민수, 곡성공장 제조2과 문창기, 곡성공장 설비2과 강성철 사우가 품질명장을 각각 수상하였다.

그동안 품질경영활동에 앞장서온 숨은 공로자와 우수업체를 발굴, 포상하는 이번 대회에서 주식회사 금호는 업계 최초 ISO 9001 인증 획득에 이어 품질경영활동에서 또하나의 금자탑을 세웠으며, 품질과 기술의 정상 위치를 더욱 굳게 지켰다. 수상식은 11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주식회사 금호, 중국 남경에 합작 타이어공장 설립계약 체결

주식회사 금호는 지난 9월 26일 중국 남경타이어와 합작으로 총 1억 2천만달러를 투자하여 남경시에 연산 3백만개 규모의 ‘남경금호타이어주식회사(南京輪胎廠有限公司)’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합작 타이어공장은 주식회사 금호가 국내 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것일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해외진출의 첫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공장은 ’96년말 완공계획으로 ’97년부터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및 트럭·버스용 바이어스 타이어를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차량 충격흡수대 전국 230여곳 설치

주식회사 금호는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한 지하철로 입구와 고가도로 분리대, 교량·교각 등에 차량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차량충격흡수대’를 제작하여 서울시내 사고다발지역 200여곳과 대구 30여곳 등에 설치하였다.

‘차량충격흡수대’는 사고시 인명과 차량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페타이어를 활용하는 환경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부산, 대전 등에 100여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제조(주)

국내 첫 채용박람회 참가, 호황

한국타이어는 지난 10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국내 처음의 채용박람회에 참가, 대학졸업으로 취업을 앞둔 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32개사가 참여하여 전시장내 개별적인 홍보부스를 설치, 이틀동안 약 2만여명의 취업희망자를 맞았다.

이들간 전시장은 취업희망자들로 입구부터 발디딜 틈조차 없이 붐볐는데, 한국타이어는 회사소개와 상담을 통해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하였다.

한국타이어는 이 박람회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홍보부스를 이용, 회사 홍보 및 기업 이미지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고속주행형 타이어 블랙버드 출시

한국타이어는 탁월한 고속주행성능과 조종안정성, 그리고 고품격 외관을 갖춘 타이어 「블랙버드」를 개발하고 홍보 및 시판에 들어갔다.

중대형차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는 블랙버드는 국내 최초의 V형 일방향 타이어로 고

속에서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 또한 V형 트레드는 좌우측이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들 조작이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다. 따라서 차가 정지해 있을 때나 운행중에도 파워휠들처럼 부드럽게 조작되므로 운전이 더욱 쉬워졌다.

고속조종안정성 제품은 V형의 일방향 타이어로 디자인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V형 타이어의 개발이 야말로 현 타이어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한국타이어 블랙버드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국내 외적 요구에 발맞춘 국내 최초의 일방향 타이어의 개발과 실용화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아프리카 난민돕기 원조물품 전달

한국타이어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해온 아프리카 난민돕기 캠페인을 부분마감하고 이 기간동안 전사업장에서 모집한 원조물품을 부산물류센터로 옮겼다.

이번 캠페인은 전사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계획량을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어 의류, 신발, 이불, 기타 잡화류 등 총 2,602박스분의 물품을 모집하였다.

이 원조물품은 600박스의

라면과 함께 5대의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물류과를 통해 아프리카 4개국(우간다, 수단, 마다가스카르, 이집트)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국의 안내로 현지 거래선과 한국타이어에서 파견된 사원들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데, 이는 국내 여러 단체나 기업들이 특정기관에 의존하여 왔던 기존의 소극적인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사원들의 정성과 사랑을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리에 끝을 맺은 아프리카 난민돕기 원조물품 모집캠페인은 '인류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한국타이어 기업이념 실현의 작은 첫걸음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타이어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TBR 신제품 교육

본사 판매부문 및 판매지원부문 사원을 대상으로 한 TBR 신제품 교육이 지난 10월 6일 본사 8층 강당에서 있었다.

이 교육에서 품질보증부는 우리회사 TBR 제품의 국내외 다양한 사용조건 및 사용용도에 따라 제품에 요구되는 특징을 설명하였고, 연구소 TB 개발부는 TBR 신제품의 주요 특성 및 성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